



조건 제 8033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음력 1월 10일)

통합시장 후보군, '미래 먹거리 산업'에 방점

강기정, AI산업 고도화·김영록,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민형배, 신성장 경제지도...해상풍력·AI데이터청 제시 대규모 산업 구상 경쟁...재원·실행력 검증 등 관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임박하면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통합 이후 지역경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반도체,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산업 전략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표심을 가를 주요 요소로 꼽힌다.

▶ 관련기사 2·8면

25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군은 8명으로 이들은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 중이다.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통합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AI와 미래차, 반도체 산업을 3각축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산업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을 비롯해 AX실증벨리 사업, AI모빌리티신도시 조성사업, AI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AI특화병원 운영, 뿌리산업 공정고도화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존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래 산업 성과를 제조·의료 등 지역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도체 3축 클러스터' 구상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광주권은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 R&D·테스트베드 거점 육성, 서부권은 솔라시도·무안공항 인근 반도체 생산기지, 동부권은 반도체·이차전지 아우르는 피지컬AI 생태계 및 반도체 팹 중 심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행정통합을 계기로 권역별 산업 기능을 분담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기에서 통합시장에 도전하는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통합시 발전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전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 공약 비교

강기정 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 의원	이개호 의원	신정훈 의원	주철현 의원	정준호 의원	이병훈 전 의원
AI·미래차·반도체 육성 ·국가NPU센터 설립 ·AX 실증벨리 사업 ·AI모빌리티도시 조성 ·뿌리산업 고도화 센터	반도체 3축 클러스터 ·첨단 융복합산업 육성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피지컬AI 생태계 완성 ·권역별 산업 기능 분담	신성장 경제지도 추진 ·신산업 개발청 설치 ·해상풍력·태양광 육성 ·AI 기반 농업 육성 ·AI혁신진흥원 설립	'남부수도' 건설 ·AI 연구원 유치 ·경제문화허브 육성 ·해양산업 활성화 ·농어촌기반소득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월강 등 친환경 전환 ·분산에너지 지역 지정 ·RE100 산단 확대 ·에너지 기본 소득	전남 동부권 활성화 ·탄소중립 산업 전환 ·우주항공산업 육성 ·반도체 산단 유치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	초광역 산업 전략 ·RE100 완성 ·로봇스 거점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미래 제조산업 유치	권역별 5대 전략 ·AI 융합도시 육성 ·자족형 경제권 구축 ·해양관광 거점 조성 ·미래산업 기반 마련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신성장 경제지도'를 제시했다. 동부권에는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 설치, 서부권에는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 육성, 중부권에는 AI 기반 스마트 농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주권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 설치를 제안했다.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지산지소' 원칙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30조를 전남에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남부수도' 건설 4대 권역별 개발 전략으로는 광주

국가 AI연구원 유치, 동부권 글로벌 경제·문화 거점 재편, 서남해안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농어촌, 지역 햇빛바람연

금 도입·농어촌 기반소득화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도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데이터센터·반도체 가공공장·RE100 산업단지를 축으로 한 '전남발전 3대 패키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동부

권에 철강·석유화학 산업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RE100 산단 확대, 이공유형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에너지 기본 소득 지급 등을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여수)은 여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합 간담회나 토론회 등에서 앞장서 동부권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여수·광양만권 탄소중립 산업

단지 유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등 7

가지 동부권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통합을 전제로 AI·에너지·첨단 제조업을 결합한 초광역 산업 전략을 밝혔다. 특히 광주공항 이전 부지를 로보틱스·첨단 모빌리티·AI 연구·생산 거점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전 결합 에너지 믹스로 RE100 완성, 해남·무안·신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축 육성을 언급하며 산업 기반 확충 의지를 드러냈다.

이병훈 전 의원(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은 광주 도시권, 광주 연계권, 전남 동부권, 전남 서남권, 전남 남부권 등으로 나눈 5대 광주·전남 공약을 제시했다.

▶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멈추지 않는 코스피 사상 첫 '6000 시대'

코스피가 25일 5천피 돌파 한달 여만에 '6000피 시대'를 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53.06p(0.89%) 오른 6022.70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000선을 돌파했다. 지수는 한때 6144.71까지 치솟으며 6100선을 넘기도 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p(1.91%) 상승한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 관련기사 4면

이로서 지난달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21거래일 만에 1000p 넘게 오르는 대기록을 썼다. 시가총액 합계액은 종가 기준 5016조8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가 기준 5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6일 4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000조원 넘게 불어났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증시 시가총액이 3조7600억달러로 집계돼 3조6900억달러의 프랑스 증시를 제치고 세계 9위 규모가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재물 기자



25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손뼉맞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즉각 추진하라"

광주시·전남도·전국 시민단체, 5·18헌법수룩 촉구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강력히 외쳤다. ▶ 관련기사 9면

광주시와 전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 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18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결의문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

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와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 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